

광전자공학 융합시대 개막 알렸다

한국광전자공학회, 전북대에서 출범식... '세도약' 선언 동계학술대회 병행... 최신 연구·산업 동향 종합 조망

한국광전자공학회(회장 조용훈)가 2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출범식과 함께 제1회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학회는 2007년 설립된 'LED·반도체 조명학회'와 2010년 출범한 '한국광전자학회'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한국LED·광전자학회'를 모태로 한다. 최근 학문 영역의 확장과 융합 기술 수요 확대에 맞춰 한국광전자공학회라는 새 명칭으로 공식 출범하며 광전자공학 융합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광전자공학은 빛과 전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LED, 레이저, 광집적회로, 광센서, 태양전지, 양자 광소자 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학문 분야다. 차세대 반도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초고속 통신, LiDAR, 광신경망, 신재생 에너지, 양자통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 토대를 이루며, 최근에는 on-packaged optics(CPO), 자율주행 등과 같은 융합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제1회 동계학술대회는 학회 출범과 함께 개최되는 첫 공식 학술행사로, 광전자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역대 최대 수준의 발표와 후원·전시 기업이 함께했으며, 기초강연과 튜토리얼, ICMOVE 개최 특별세션, 구두·포스터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기업과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런치+인사이트(Lunch+Insight)'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 산학 협력의 실질적 접점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광전자공학회 초대 회장인 조용훈 KAIST 교수의 개회사를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그리고 모태가 된 세 학회를 대표하는 전임 회장들이 참석해 학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광전자공학회가 2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출범식과 함께 제1회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회의 18년 이상의 전통과 성취를 계승하면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첨단 기술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 학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한국광전자공학회의 출범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광전자공학회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학문적 깊이 강화 △융합 연구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 △국제 학술 교류 확대 △차세대 연구자 육성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으며, 첨단 기술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 학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회원들과 함께 결의했다. 이번 출범식은 광전자공학 분야의 역사적 계승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천명한 자리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전주대, 80억 규모 AI 인재 양성 가능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인공지능(AI) 분야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주대는 이번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정부 지원금 71억 2,500만 원과 지자체 대응자금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도권과의 AI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전북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는 전북 전략산업의 AX(AI 전환)을 선도하는 실무형 퍼지컬 AI 인재 양성을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퍼지컬 AI(Fuzzy AI)'는 인공지능을 로

봇, 미래차, 스마트 제조 등 물리적 실체에 접목하는 기술로,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모빌리티 분야의 지능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주대는 지역 내 기관 및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체 수요 기반의 AI 융합 교과목 공동 개발 △기업 현장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현장실습 강화 △단계 집중 이수제 및 마이크로디그리 도입을 통한 유연한 학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AI 실무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AI 시대, 활용 역량 키워 미래인재 양성"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공공학습플랫폼 구축 등 발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AI 미래교육'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 지역 교육 여건에 맞춘 AI 기반 공공학습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의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AI를 학습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학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넓혀 전북 전역에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을 넘어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스마트폰 프리학교 시범 운영과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병행해 균형 잡힌 디지털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질문 중심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줄 방침이다.

또한 대학과 특성하고, 과학 등과 연계한 AI 심화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영재학교·마이스터고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진로·진학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학습 격차 해소와 지역 학교 소멸,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AI 중심 교육이 기술 편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문·예술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 300권 프로젝트'를 통해 사교력과 인문 소양을 기르고, '1인1예술 융합교육'을 추진해 모든 학생이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격차 없는 전북형 AI 활용교육과 공공학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인문학적 성찰과 윤리를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미래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폐지학교 비전자기록물 이관 전북교육청, 안전보존 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전주 전북고등학교와 무주 무봉고등학교의 비전자기록물을 분청 기록관리실로 이관받아 안전하게 보존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전자기록물은 디지털 파일이 아닌 종이 결재서류,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사진 등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이번 이관은 폐지학교가 보관해 온 법적 보존 대상 기록물을 온·오프 관리가 가능한 전문 보존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교육청은 이관된 기록물을 보존 기간과 기록물 성격에 따라 분류·정리해 장기 보존 체계를 구축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록물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향후 행정적·법적 활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월 1일자로 폐쇄할된 정읍 도화초, 남원 금지동초, 김제 비룡초, 무주 부당초, 부안 상서초, 군산 선유도중, 무주 무봉중 등 7개 초·중학교의 기록물은 각 소속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통합 대상 학교에 이관돼 관리된다. /오상근 기자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6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퇴직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 발전 기여 교원 공적 기리다

전북교육청, 이달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황조근정훈장 11명·홍조근정훈장 33명 등 82명 영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은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6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제직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공적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월 말 정년퇴직하는 유·초·

중등 교육공무원 가운데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82명이다.

훈격별로는 황조근정훈장 11명, 홍조근정훈장 33명, 녹조근정훈장 26명, 옥조근정훈장 7명, 근정포장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이다.

황조근정훈장은 박영수 전북특별자치도내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1명이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최영숙 전주 하가초등학교 교사 등 32명, 녹조근정

훈장은 이경숙 군산중앙유치원장 등 26명이 수상했다. 옥조근정훈장은 고현욱 김제고등학교 교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근정포장은 조미숙 전주 온빛초등학교교장, 최영숙 전주 하가초등학교 교사 등 32명, 녹조근정훈장은 이경숙 군산중앙유치원장 등 26명이 수상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다"며 "선생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은 전북교육의 소중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간의 지혜와 경륜이 우리 교육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석면 제로화' 달성

작년 기준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100% 제거... 교육부 계획보다 2년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건축물의 석면을 100% 제거하며 '석면 제로화'를 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790개 학교의 잔여 석면 면적이 0㎡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4년 897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65만3,681㎡ 규모의 석면 작업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에 걸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제 규격 축구장 약 7,140

㎡) 23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석면을 제거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2027년 석면 제로화' 계획보다 2년 앞선 성과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완전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석면 제거와 함께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내진보강 확보

율은 79.1%, 드라이버트 제거율은 70.1%, 샌드위치패널 제거율은 88.2%,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92%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드라이버트 및 샌드위치패널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김종기 시설과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이 한층 강화됐다"며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학교는 2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당대 W-SKY230에서 전임교원 정년퇴임식을 열고 오랜 기간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수들의 공로를 기렸다.

우석대, 전임교원 7명 정년퇴임식 개최

정부포상도 함께 수여

우석대학교는 2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당대 W-SKY230에서 전임교원 정년퇴임식을 열고 오랜 기간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수들의 공로를 기렸다.

이번 정년퇴임 대상자는 백성기(무지컬학과)·노재현(산림조경원예학과)·이홍렬(수학교육과)·오석홍(식품영양학과)·권무현(에너지전기공학과)·김환중(작업치료학과)·이창현(한의예과) 교수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백성기·노재현·이홍렬·오석

홍·권무현·이창현 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정부포상도 함께 수여됐다. 오석홍·김환중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백성기·노재현·이홍렬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권무현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정년퇴임 교원 전원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박노준 총장은 "교수님들께서 오랜 시간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에 헌신해 주신 덕분에 대학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학문적 열정과 헌신은 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